

“한인여성의 디아스포라와 정체성”

The Korean Diaspora Women and Their Identities

2017. 11. 1. (수) 13:00~18:00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601호 신한은행홀

주최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젠더와 국제이주" 연구팀

후원 : NRF 한국연구재단

초대의 글

INVITATION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얼마 전 막을 내린 파독간호사들의 삶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국경을 넘어, 경계를 넘어’의 전시실 벽면에서 볼 수 있었던 문구입니다. 막스 프리쉬가 서유럽에 유입된 이주노동자의 역사를 압축해 표현한 이 말은 전방위적으로 국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에 더욱 인상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국외 출입이 현실화되고 전 세계 어느 곳과도 실시간으로 네트워킹이 가능해진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를 넘나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고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2017년 가을,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한인여성의 디아스포라와 정체성”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적 경계의 약화와 함께 사회적·문화적 경계 역시 희미해지며 국가와 민족이라는 기반 위에 뿌리내리고 있던 한국인의 정체성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계 위에서 부유하는 현대 한국인의 정체성을 비추는 거울을 찾아 때론 자발적으로 그리고 때론 타의에 의해 해외로 이주한 한인이주여성들의 삶의 궤적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본 학술대회는 “한인여성의 디아스포라와 정체성”이라는 주제 아래 아시아와 미국·유럽이라는 권역별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져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 각기 다른 이유로 이루어진 한인여성들의 이주는 그 개인적 동기는 물론 집단이주가 이루어진 사회적 환경을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한인이주여성들이 민족과 인종, 그리고 젠더의 위계와 차별 속에서 일구어낸 삶과 문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와 교류하고 충돌하면서도 고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파편을 복원하고 그 원동력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경계의 약화와 혼종화의 확산으로 양산되는 현대적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하여도 심도깊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지구화 시대의 미래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형성해 나갈 지에 대한 준비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함께 자리해주시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가슴 한편에 한인이주여성들의 인내와 삶의 결실을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장 박 소 진

프로그램

PROGRAM

사회: 김희란 (아시아여성연구원 연구교수)

13:00~13:20	등록
13:20~13:30	개회사: 박소진 (아시아여성연구원 원장) / 축 사 : 강정애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13:30~15:30	1부: 아시아 한인여성의 디아스포라와 정체성 • 사회: 권숙인 (서울대학교) • 발표 1. 한인여성의 디아스포라, 그 주인공으로서의 한인여성들 발표: 나혜심 (성균관대학교) / 토론: 황정미 (강원대학교) 2. 박정희 정권의 한일국교정상화와 재일한인여성:트랜스border 민족주의와 국적문제 발표: 이지영 (연세대학교) / 토론: 정미애 (국민대학교) 3. 호주 한인 ‘1세대’ 여성의 이민과 정착 경험: 개인적 다양성과 집단적 특수성을 중심으로 발표: 문경희 (창원대학교) / 토론: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 질의응답 및 토론
15:30~15:45	휴 식
15:45~17:15	2부 : 미국·유럽 한인여성의 디아스포라와 정체성 • 사회: 신혜양 (숙명여자대학교) • 발표 1. 조국에 대한 공헌과 재외한인으로의 인정: 파독간호인력과 미군아내의 사례 비교 발표: 김민정 (강원대학교) / 토론: 김현희 (성균관대학교) 2. 중앙아시아 고려인 여성 디아스포라 - 신문 『레닌기치』에 나타난 고려인 여성의 활동 (1937-1953) 발표: 기계형 (한양대학교) / 토론: 김게르만(건국대학교) 3. 독일 파독간호 여성의 이주와 삶 발표: 유진영 (고려대학교) / 토론: 정선이 (서울여자간호대학교)
17:15~18:00	종합토론 및 폐회 • 사회: 신혜양 (숙명여자대학교)

오시는 길

MAP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6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청파동27가)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10번 출구 도보 10분 또는 지선버스 용산 04)
- 지하철 1호선 남영역
(도보 15분 또는 지선버스 용산 04)
-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
(2번 출구 도보 15분 또는 지선버스 400, 2016)

>> 문의

04309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나길 36 숙명인재관 412호
TEL: 02-6325-3154 FAX: 02-710-9177